

大衆詩, 그 출현에서 정착까지

청소년독자 겨냥한 '사랑시집'... 시집유통시장 거의 장악

박덕규

문학평론가

「만남에서 동반까지」(박렬),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칼릴 지브란·페리 해스켈), 「시간의 얼굴」(이해인), 「O속에서」(김기린), 「편지 I」(김미선), 「홀로서기 I」(서정운), 「영감의 시」(정명석), 「이런 사랑이고 싶습니다」(이경아), 「회색빛 이별2」(김해경), 「내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하덕규) - 이것은 최근 한 대형서점에서 집계한 주간 베스트셀러 시집부문 10선의 순위별 제목이다. 다른 대형서점들의 집계 역시 이와 대동소이하고 다른 주간의 집계 또한 이런 유형과 비슷하므로 이 집계의 타당성 문제는 차치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건은 이미 벌어져 있으며, 벌어져 왔다. 그 사건의 개요를 말하면, 정통음악사에서는 배제되면서도 대중들에게 우상으로 떠받들어지는 대중가요가 있듯이, 정통문학사에서는 배제되면서 새로이 대중들의 집중적인 수요의 표적이 되는 '대중시'가 대거 출현하여 시집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시집이 한권이라도 더 많이 보급되는 시대를 고대하던 우리 출판문화계의 오랜 염원이 이렇게 현실화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단순히 진정한 문학보급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모순된 인식이 있다.

시집이 크게 대중화되는 일로 따지면, 윤동주·김소월·한용운 등의 시집은 지금이라도 웬만큼만 깨끗하게 제작해서 내놓으면 기대치에 쉽게 도달할 정도로 오래도록 스테디셀러 품목이 되어왔다. 오늘날 유행하는 신4x6(B6신)판 시집이 보급되기 시작한 70년대 후반부터 따져보아도(사실 베스트셀러 집계도 이 무렵부터 가능했다) 크게 대중화된 시집을 보면 대체로 우리 문학사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김지하의 「황토」 같은 시집은 앞의 집계를 낸 서점측이 제시한 80년대 스테디셀러 20선에 든 바 있고, 그 외에도 황동규의 「삼남에 내리는 눈」,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성복의 「똥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등도 꾸준히 대중화되고 있는 우수한 시집들이다.

그에 비해 지금의 베스트셀러 시집들은 어떤가. 문학사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 이러한 베스트셀러 시집들은, 좀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김소월·한용운류의 또다른 종파들이다. 이들은 이를테면 우리 시의 서정적 감성이라는 정신사적 흐름을 그 외양으로 이어받아 거기에 자기 체험을 버무려 당대적

감성체계를 빚어내고 있다. 80년대 초중반 초베스트셀러로 떠올랐던 이해인의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민들레의 영토」 「내 혼에 불을 놓아」 등 세권의 시집은 그 대표적인 시집이다. 여기에는 기다림의 사랑이라는 종교적 심성이 쉽고 단아한 어조로 표현되어 있다. 이에 뒤이어 역시 '사랑'을 내세운 김초혜의 「사랑굿」이 베스트셀러로 부상했으며, 86년에는 도종환의 「접시꽃당신」이 위암으로 죽은 가난한 아내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어 87~88년은 단행본 사상 초유의 '기네스북' 시집 「홀로서기」가 등장했는데, 「홀로서기」 열풍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아주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서정운이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니 그 시집이 청소년들에 읽혔고 읽히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간간히 문학사에서 인정하는 권위의 시집이 베스트셀러권에 진입한 예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이다. 이것도 출판계에서는 충격의 사건이었다. 이후 펴박받는 계층의 삶이 담긴 시집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던 것이다. 오규원의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도 잠깐 대중적 '주목'을 받았었고, 문명세대의 새 기수인 장정일의 「햄버거에 대한 명상」도 이후 젊은 세대들의 시집 양산 추세를 배태시켰으며 최근 기형도의 「입속의 검은 잎」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중시는 아무래도 '사랑'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이들 중에는 아예 '영혼의 속삭임' '사랑·명상의 시' 식으로 표지에 소재목으로 드러내는 예도 많다. 이를테면 '사랑'의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든 오늘날 시집 독자층의 9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층의 구매욕구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사랑의 내용은 어떤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갈등과 혼란의 현실을 사랑으로 극복하자'거나 '기다림은 사랑의 완성', '아픈만큼 성숙되는 것'이라는 식의 즉자적 논리로 대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여기에 출판사의 출판전략이 보태어져서 '이 시집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적어 보내주시면 선물을 주겠다', '이 시와 함께 들을 팝송' 등의 문구를 시집 가운데 넣어 독자대중의 호기심을 끌며, '얼굴 없는 시인' 등의 문구에



대형서점의 시집코너.

서 보듯 도리어 그 시집이 '무명시인'의 것임을 당당하게 내세워 '기성'이라는 권위가 가져다주는 '난해하다는 선입관'을 아예 없애 버린다. 길을 갈 때도 이어폰을 꽂고 팝송을 듣는 우리의 심야방송 세대 청소년들은 교과서 외에 이런 시집으로 시를 즐기고 생활화하며 문화적 교양을 넓혀나가고 있다. 그들은 사랑시집이 말하는 사랑의 소리를 흉내내어 친구에게, 짝사랑애인에게, 인기가수에게, 홍콩배우에게 편지를 쓰고 심야방송과 대화하며 사춘기 청춘의 길고 긴 밤의 외로움과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나간다.

이 현상은 이미 벌어져 있다. 다만 이 현상이 초래된 근원을 따질 수는 있다. 위로받을 아무런 대상이 없는 세대가 품은 문화적 보상심리를 우리 문학은 한번도 거론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창작주체를 향한 질문은 아니다. 문학을 놓고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작가-작품-독자의 3단계로 볼 수 있다. 흔히 수용미학이라는 것은 예술을 수용하는 대중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대중시는 그래도 수용자의 격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기라도 한다. 사랑시집들이 가지는 그 자체의 한계가 조금도 걸리지 않고 대중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현상을 두려운 어조로 말하는 것은 '시도 아닌 것이 잘 팔리니 배 아프다'거나 또는 '대중이 그런 수준이면 안 팔리는 편이 낫다'는 식의 자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새 세대들에게 올바른 문학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아무런 장치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공포에의 해방을 대중시를 통해 (그것도 '시를 읽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누구라도 믿어왔던 일 아닌가) 이루어낸 세대가 다음대에 와서 그 '난해한' 시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으리라 보는가. 문학사에서 인정하는 그 '좋은' 시를 오늘날 대학생층이 얼마나 안 읽고 있는지는 대학 현대문학 전공학생들이 잘 증명해 준다. 문학 엘리트들, 특히 비평가들의 당위론의 싸움들은 얼마나 많은 문학저널을 점유했으며 그것이 문학창작과 문학수용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큰 억압요소로 작용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창작자들은 비평에 신경 안써야 한다'는 허울좋은 얘기는 휴지족이다. 비평가들이나 출판매체, 문학저널 들은 권위지향에서 벗어나 창작자가 수용자에게로 나아갈 길을 선도적으로 열어주어야 한다.

지금의 구조대로라면 대중시가 시의 유통과정을 순화 또는 다양화시켜 '문학사적인 시'들이 대중화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여지조차 없다. 창작자들도 비평가들의 당위적 명제의 관념론·명분론 등을 혁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자본논리에 편승해 화해주의·생산만능주의에 젖지 않도록 자기반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새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천편일률적 교육환경이 큰 문제이며 그것에 대책 없이 살아가는 기성층이 또한 이미 병들어 있다.

그리고 다시 문제는 고스란히 대중시에게로 돌아온다. 시를 쓰는 기쁨과 그 자유의 권한, 그것을 남에게 읽히고픈 욕구 등은 이제 그대로 수용자의 처지에서 진정으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 새 세대에게는 위안만큼이나 세계를 풍부하게 꿈꾸고 전망할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을 제공하라. 그것은 기성의 책무요 또한 문학의 책무요, 일시적인 대중시의 자리에서 위대한 보편시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 요건이다.